

“하트시그널3 출연하고 싶어요”...신청자 1000명 돌파

친구소개 이벤트 페이지 인기 폭발
이진민PD “출연자 선정 심사숙고”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살릴 출연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트시그널3’은 ‘시그널 하우스’로 불리는 합숙소에 들어간 8명의 젊은 청춘이 각자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모은 예능프로그램이다.

2017년 1편과 2018년 2편 등 전체 시리즈를 연출한 이진민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올해 겨울 3편을 본격적으로 촬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10일부터 프로그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출연자인 ‘시그널 하우스’ 입주자를 모집, 22일 현재 1000여 건의 신청을 받았다. 출연자로 친구를 추천하는 ‘할친소’ 이벤트 페이지도 열린 지 3일 만인 22일 1000여 개의 댓글을 모았다.

이는 앞서 1편의 장천, 2편의 정재호, 임현주 등 출연자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덕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배운경과 오영주는 곧바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최근 케이블채널 엠넷 ‘쌈바디’ 등 다양한 연예 소재 예능프로그램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출연자의 ‘매력’만이 각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확보하는 관건인 셈이다.

이진민 PD는 22일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출연자 찾기에 힘쓰고 있다”며 “모집 공고의 마감 기한을 두지 않고 매력적인 출연자가 나타날 때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5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대중적 이미지 구축 나선 뉴이스트·투모로우바이투게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7년차 케이팝 그룹 뉴이스트(위)와 신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나란히 새 앨범을 내고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팬들 앞에 섰다.

뉴시스

7년 카리스마 버리기 vs 방탄 동생 꼬리표 떼기

〈뉴이스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이스트, 밝은 분위기 변신 시도
T×T, 새로운 세계관 만들기 각오
한정된 팬덤 영역 넘어설 지 관심

두 케이팝 선후배가 나란히 승부수를 던졌다.

데뷔 각각 7년과 7개월이 된 두 아이돌 그룹이 같은 날 새 앨범을 발표하고 ‘대중성 확보’라는 큰 그림 아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주인공은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국내외에서 팬덤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5인조 그룹 뉴이스트(JR·Aron·백호·민현·렌)와 올해의 ‘대형신인’이라는 타이

틀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5인조 신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수빈·연준·범규·태현·휴닝가이다).

두 그룹은 같은 고민을 담은 새 앨범을 21일 동시에 선보였다. 국내외에서 입지를 구축해온 이들은 이제 한정된 팬덤의 영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폭넓은 대중적 이미지를 쌓아가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우선 뉴이스트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과감히 버렸다. 이날 내놓은 일곱 번째 미니음반 ‘더 테이블’은 그 시도를 느끼게 한다. 타이틀곡 ‘러브 미’를 비롯해 모든 수록곡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며 어둡고 강렬한 모습에서 벗어나 청량하면서도 밝은 분

위기를 드러냈다.

수록곡 대부분을 작곡한 백호는 이에 대해 “전환기를 맞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파격적인 변화를 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전부터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도 비장감이 마친가이다. 데뷔 때부터 ‘방탄소년단의 직속후배’라는 꼬리표를 달고 주목을 받은 이들은 그 부담감을 털어내고 이번에는 매력과 실력으로 제대로 승부할 기세다. 이들은 “언젠가 선배들처럼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이들은 ‘소년’의 서사를 펼쳐 놓았다. 데뷔 앨범 ‘스타’에서 ‘너를 만난 기쁨’을 표했다면 이번 앨범은 ‘소년들이 함께 하며 벌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담아내며 팬들과 소통을 꾀했다.

멤버 수빈은 “팀의 세계관이나 곡은 방시혁 PD(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상의한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점차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태현은 “무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는 방탄소년단의 격려를 전하며 “내가 왜 무대에 서는지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많은 걸 떠올린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동백꽃’ 또다른 재미...‘까불이 찾기’ 흥미진진

단서 하나씩 제공하며 긴장감 키워
철통 보안...대본도 제본해서 배포

시청자들이 KBS 2TV ‘동백꽃 필 무렵’ 속 연쇄살인범 ‘까불이’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있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로 여주인공의 남편 찾기에 열의를 드러낸 시청자 경험이 다시 호출되고 있는 분위기다.

‘동백꽃 필 무렵’은 공효진과 강하늘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둔 드라마. 하지만 이들이 마을사람들과 벌이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까불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

등장하면서 드라마는 스릴러의 요소로도 긴장감과 재미를 안긴다.

드라마는 17일 방송을 반환점 삼아 ‘까불이’에 관한 단서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추측과 가설을 내놓고 있다.

이는 tvN 2012년 ‘응답하라 1997’을 시작으로 ‘1994’와 ‘1988’ 속 여주인공의 남편 찾기에 빠져 들었던 시청자 시선과 맞닿아 있다. 각 시리즈에서 정은지·고아라·혜리는 각기 두 남자와 삼각관계에 놓였고, 이들 중 한 명과 결혼했다. 제작진은 결말 직전까지 남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캐나 손 등 신체 일부만 비추는 연출 방식으로 궁금증을 키웠다. 시청자는



동백꽃 필 무렵

애고 섞인 불만 속에서도 남편 찾기에 관한 다양한 추정으로 드라마를 즐겼다.

확실한 건 이런 과정이 드라마의 인기로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시청자 시선을 붙잡는 ‘장외전략’인 셈이다. 스토리의 또 다른 ‘창작자’로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방송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로도 작용한다.

문제는 스포일러이다. 자칫 결말이 새

어나갔을 때 재미가 반감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응답하라’ 제작진은 결말에 대한 ‘철통 보안’을 고수한 바 있다. ‘동백꽃 필 무렵’ 제작진은 컴퓨터 파일로 전달하던 대본을 제본해 배포했다. 또 ‘까불이’ 연기자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동백꽃 필 무렵’은 로맨스와 휴먼,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어 자칫 ‘까불이’가 그 중심에 자리잡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김경민 과장은 22일 “‘까불이’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아져 기획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까 부담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드라마 인기에 제작진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완성도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방증인 셈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4

메가박스, 넷플릭스 영화 ‘더 킹’ 개봉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더 킹:헨리 5세’가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다. 22일 메가박스는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 중 처음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더 킹’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 제작 작품으로, 넷플릭스에선 11월1일 공개된다.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그동안 통상적인 극장 개봉작과 달리 OTT 영화는 홀드 백(한편의 영화가 극장 개봉 뒤 일정한 기간 이후 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유통되기까지 기간)이 없어 국내 유통시장을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상영하지 않았다. 메가박스는 “OTT콘텐츠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싶어 하는 관객 요구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자·양희은, 은관문화훈장 받는다



김혜자

양희은

배우 김혜자와 가수 양희은이 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여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앞서 22일 ‘섬세한 연기로 사랑받아온 김혜자와 노래로 동시대의 삶을 위로한 양희은’에게 각각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고 밝혔다. 또 그룹 키보이스의 멤버이자 국내 1세대 밴드 기타연주자 김홍탁, 드라마 ‘서울의 달’ ‘서울뚝배기’ 등의 김윤경 작가 등이 보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엄정아, 배철수, 밴드 봄여름가을겨울, 성우 김기현, 영화 ‘기생충’ 흥영표 촬영감독 등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송혜교·김남길, ‘아름다운 기부’ 활발



송혜교

김남길

연기자 송혜교와 김남길이 기부의 아름다운 손을 내민다. 송혜교는 여성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와 손잡고 2020년 2월까지 판매하는 앵클부츠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스니커즈로 제작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기탁한다. 김남길은 12월8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여는 공연 ‘김남길의 우주 최강 쇼’ 수익금 전액을 자신이 이끄는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와 함께 공공예술 캠페인을 위해 내놓는다.

한국영화 미래 100년 학술토론회 개최

한국영화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전망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영화기자협회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및 KBS와 함께 2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술토론회 ‘한국영화 새로운 100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개최했다. 이만하 중앙대 융합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국내 영화전문가 120명을 상대로 사전 설문조사해 도출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